

# ‘관광도시’ 정읍, 사계절 북적북적

### 상반기 생활인구 34만7755명...1분기보다 체류인구 1만5000명 늘어 캠핑장·놀이시설·음악분수 등 조성...가을 한철 관광지 이미지 탈피

정읍시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며 생활인구 증가라는 효과를 얻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정읍시의 생활인구는 34만7755명으로 1분기 33만2088명보다 5% 증가했고, 이는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체류인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2분기(4~6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의 내용이다.

생활인구의 증가는 정읍이 과거 가을 한철 관광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실제 6월 기준 숙박일수(4.7일), 6개월 내 재방문율(44.7%), 체류일수(3.6일), 체류일 당 평균 체류시간(12.5시간) 등이 전국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읍을 방문한 사

람들이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사계절 관광시설 조성에 주력해 온 정책적 노력을 꼽는다.

그간 시는 내장산과 구절초 등 자연 자원에 의존한 가을철 관광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전주와 광주 등 200만 인구가 사계절 내내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기존의 '내장야영장(65면)', '국민여가 캠핑장(154면)' 외에도 '내장호 야영장(54면)'을 새롭게 조성해 캠핑 인프라를 확장했다.

또 내장산 문화광장 내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인 '천사 하이로드', 가족 단위로 음악과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위더파크 음악분수'를 비롯해 '임산물 체험단지'와 '목재문화 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형 힐링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도 운영을 시작

했다.

아양산 산림공원은 자연경관을 갖춘 '녹색쉼터(4만7000㎡)'와 '유아숲 체험원', '나무놀이숲' 등이 들어서며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체험형 친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와 자연이 어우러진 '정읍사 달빛사랑숲'이 새롭게 재구성돼 야간경관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다양한 체류형 관광시설을 통해 생활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도심형 힐링 공간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구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로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류형 사업들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며 "가을 한 철이 아닌 사계절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세계유산 고창 방문의 해’ 균형발전 공로 고창군, 지방시대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특별상’



지방시대위 주관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특별상'을 받은 고창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야심차게 준비해 추진했던 정책사업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가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로 상을 받았다.

고창군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주관으로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지방시대위의 특별상은 지난해 순천만 정원박람회 이후 고창군이 2번째 수상이다.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고창군이 추진했던 '고창 방문의 해'를 두고 정부 지원 없이 하드웨어가 아닌 주요 축제 페스티벌, 시티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승부한 도전과 성공 스토리라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앞서 심덕섭 군수는 2023년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이전 광역단위(전라북도 방문의해)나 주변 시부에서는 4~5년 시차를 두고 진행됐지만 고창군에서는 첫 시도였다.

고창과 서울 등 2차례에 걸친 선포식을 시작으로 '제1회 고창빛축제', 'KBS 열린음악회' 유치,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 고창 기념행사', '한여름밤의 페스타' 등 연중 끊임없는 축제와 각종 공모전 개최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제50주년 고창모양축제' 군 직영 운영, '차별화된 3無(일회용품,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축제' 추진, 군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로의 전환, 색다른 즐길거리 제공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수상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도 고창만이 주는 특별함을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방문객들이 지역을 찾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 사람을 결합해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기반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을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균형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 주민 문화·여가 '지리산권SOC복합센터' 개관

### 인월면 황산로 일원 4038.85㎡ 수영장, 청소년·주민 공간 등 조성



지난 7일 남원시 인월면에서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인월면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가 최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는 남원시가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월면 황산로 1804(서무리 628-2번지)에 국·도비 60억 등 총 사업비 158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38.85㎡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 기계실 ▲지상 1층 실내수영장,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지상 2층 헬스장, 다목적회의실, 주민자율공간 ▲지상 3층 청소년 자율공간 '청온(ON)'으로 구성돼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가 국민체육시설과 생활문화공간을 갖추고 있어 지리산권 4개 읍면(운봉, 인월, 아영, 산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생활 SOC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동부산악권에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

가 건립돼 지리산권 4개 읍면에 생활 문화가 활성화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 연지맨션 인근 소방도로 완공

### 긴급차량 신속 이동...화재대 구조·대응력 높여

정읍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지동 연지맨션 옆 소방도로 개설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소방도로는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110m, 폭 7m의 구조로 설계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소방도로 개설로 연지맨션 주변의 좁은 골목길로 인한 소방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인 구조와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히 구급차와 소방차 등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

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도시의 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읍시 전역의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전북서남상의’ 38년만에 신청사

### 정읍·김제·고창·부안 경제단체 상공인 권익보호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지역 상공인들의 경제단체인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신청사가 준공됐다.

지난 7일 정읍 농소동 일원 신청사에서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과 고창의 시·군의원 및 도의원과 유관기관 단체장 및 상공회의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식 열렸다.

일제강점기 광복 직전인 1948년 7월9일 당시 '정읍상공회의소'로 설립된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1980년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까지 관할을 확장한 뒤 2016년 명칭을 바꾼 후 현재까지 4개 시·군 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38년간의 구청사 역사를 뒤로하고 건립된 신청사는 연면적 844.03㎡ 규모에 지상 3층으로 지어졌다.

1층은 각종 국·과·시를 치를 수 있는 시험장과 필로티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2층은 사무공간, 3층에는 대강당이 갖춰졌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신청사의 활용을 놓고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개방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공회의소 신축을 놓고 일부의 반발이 감사원으로부터 이어지는 등 전북서남상공회의소가 힘들었던 만큼 시정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어렵게 이뤄진 결실인 만큼 전북서남상공회의소가 정읍과 고창 등 관할지역 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더 큰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필 회장은 "전북 서남권의 대표적 법정 경제단체로서 상공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의 지원과 회원사 여러분의 협조 속에 신청사를 건립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